

扶餘 定林寺址 五層石塔

— 實測에서 나타난事實 —

洪 思 俊

扶餘邑에 자리잡고 있는 定林寺址의 百濟五層石塔은 國內外에 널리紹介되었고 더우기 學術面에서 石造建築物로 많은 關心을 갖어 韓國의 最古石塔이다. 益山郡 金馬面 箕陽里에 있는 彌勒寺址 石塔이 木造建築을 石造化한 形式이라면 定林寺址 五層石塔은 韓國石塔에 典型的인 石塔樣式으로 볼 수 있는 唯一한 石塔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貴重한 位置에 있는 石塔이나 百經滅亡後 千三百餘年에 한번도 倒壞된 적이 없으며 補修한 때가 없으며 오늘날까지 巍然히 서있는 그것은 百濟人의 石造建築技術이 卓越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反面에 이 石塔을 分解하여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 內容에 있어서 아직까지 詳細한 學術的 調査가 進行되지 않았던 것이 遺憾이 아닐 수 없다. 一九六三年 二月中旬에 겨우 이 石塔을 實測할 機會가 있어서 四面을 細密히 보았고 尺數를 一一히 記錄하는데서 지금까지 未知數이었던 것과 別關心을 두지 않았던 몇개部分에서 意外의 事實이 알게 되었으므로 아래에 그 본바를 紹介하여 後人이 이 方面研究에 參考가 될가 하여 적어둔다.

(1) 基壇部의 外廓石列

別表에서 보나 싶히 石塔基壇部 地臺石底邊에서 平均 六七cm 外側으로 四圍에 길이 九〇cm — 一二〇cm의 板石을 一面四個式을 세워 밖에서 그 머리만이 地臺石底且地平과 같이 一列로 되어있다. 이것은 必是 石塔全體의 重量으로 因한 重壓을 地臺石 괴임을 通하여 壓石이 地臺石以外 地面으로 퍼져나가는 同時에 地臺石이 물러날 것을 防止하기 爲한 豫備措置가 아닌가 생각된다. 昨年 一二月에 慶州 瞻星臺를

實測할 적에도 이와 비슷한 事例가 瞻星臺四方地臺石周邊에서 본 記憶이 있는데 瞻星臺에서는 板石을 地中에 埋沒시킨 것이 아니고 地面에 깔았음이 定林寺址石塔 外廓石과 다른 點이라 하겠다.

(2) 屋蓋四隅에 隅棟마루形

一層 — 五層의 蓋石落水面 四隅線上에는 木造建築의 개와집 隅棟마루形으로 幅 一二cm의 두두룩한 모양을 내었다. 彌勒寺址石塔四隅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두 石塔들이 木造塔에서 石造化한데서 木造지붕의 隅棟마루形이 石塔四隅에 그 痕跡을 보이고 있다. 統一新羅以後에서는 四隅를 線으로 分岐시킴이 많으며 다만 浮屠蓋石에는 더러 볼 수 있는 것이다.

(3) 第四層에 舍利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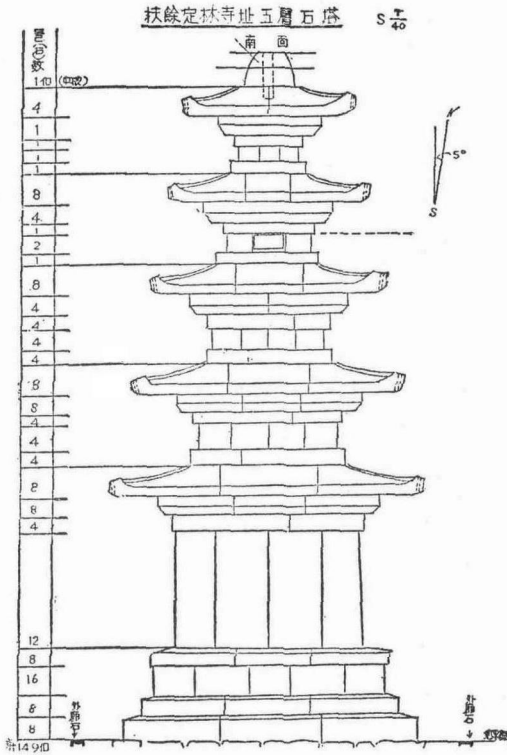
本是 舍利는 塔婆에 重要한 것으로 木造塔婆에서는 그 藏置를 塔中心礎에 備置하던 것을 軍守里 百濟廢寺址의 地下 五尺—六尺 塔心礎石에서 發見된 것과 現扶餘署의 百濟寺址心礎石이 發掘되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定林寺址石塔에서는 第四層塔身南側面 厚 一三cm 板石으로 가린 舍利孔이 있음을 알았다. 當初 造塔때에 計劃으로 同塔身의 높이 二三cm를 長 六〇cm 幅 四三cm 矩形으로 舍利孔을 만들되 그 內部的 四隅를 안쪽으로 돌리게 도려낸 것이 特殊하다고 하겠다. 實測當時에는 遺物이 있는 것 같이 않았다. 第四層 屋蓋받침이 세멘으로 補修한 痕跡이 있음을 보아서 日政時代에 舍利孔은 이미 紛失된 것이 아닐까 推測되었다.

(4) 其他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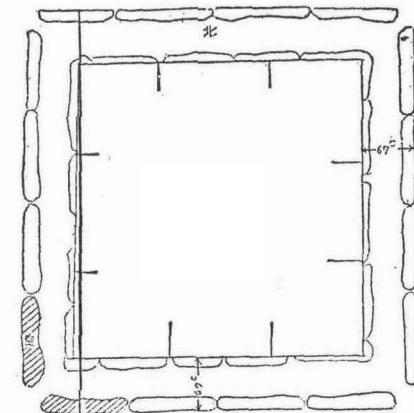
定林寺址 五層石塔은 新羅統一以後의 石塔造營方式과 달라서 木造建築物과 같이 隅柱形石 壁板石 基壇石 등이 長石과 板石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別表에서 보나 싶히 基壇石材는 長石 四〇個와 第一層에서 第五層石材는 一〇八個 露盤 一個 등으로 都合 一四九個로 造成되어 있다. 또는 第一層—第五層의 屋蓋石四隅角에는 風鈴을 달았던 上下맞춤린 小孔이 各各 한곳이 있어 옛모습의 一端을 짐작하게 하는데 特別히 第五層屋蓋石 東南角에서는 아직도 當時 風鈴을 걸어 놓던 무쇠장식이

늑이 쓸어 검붉게 끼어있음을 볼적에 懷古의 느낌이 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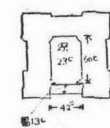
定林寺址五層石塔은 西紀 六六〇年 百濟가 나라이름을 잃었던 以前의 石塔으로 吊古의 情과 亡國의 恨을 한몸에 실은 百濟造塔의 手法과 技巧를 보여주는 石塔이다. 그늘 씩한 蓋石에 귀를 살짝 접어 올려서 輕快한 妙味를 낸 솜씨며 純厚淡淡한 形態에도 巍然한 氣風이 깃드린 이 石塔은 後人으로 하여금 當時藝術을 驚嘆케하는 것이다(一九六四、一、九)



地台石과 外廓石 平面圖 S. 1/40



舍利孔 平面圖 (四圍塔身)



威安 主吏寺 四獅石塔址의 調査

秦 弘 燮

威安 舊邑 威成中學校 入口에 四獅石塔이 있고 이 塔은 主吏寺址에서 移置한 것으로 主吏寺址 四獅石塔으로 呼稱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現在 이 塔을 構成하고 있는 部材는 四獅子, 屋蓋石, 四, 塔身, 二, 露盤, 寶珠 各一이 남아 있다. 그런데 그 重層方法도 順序대로 되어 있지 않고 基壇部는 全無하다. 이것은 勿論 移置할 때의 不注意